

예방접종·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주의하세요 -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, 발열 등 -

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. 이에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)와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은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
최근 3년간('23.1.~'26.4.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,147건이었다.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(238건) 대비 94.1%인 224건이 증가했으며,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* 연도별 접수 현황: ('23년) 260건 → ('24년) 238건 → ('25년) 462건 → ('26년 4월) 187건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병원, 소방서,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(117개)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‘비만 치료제’ 위해정보 접수 건수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

유형별 분석 결과, 독감 등 ‘예방접종’으로 인한 사례가 27.3%(314건)로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 ‘비만 치료제’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.3%(210건), ‘진통제’ 투여로 인한 사례가 7.1%(81건) 순으로 나타났다. 특히 ‘비만 치료제’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.

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‘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이 16.7%(192건)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오한, 발열’이 13.0%(149건), ‘구토’가 8.1%(93건) 등의 순이었다. 주사제 유형별로 ‘예방접종’은 ‘오한, 발열’ 증상이, ‘비만 치료제’는 ‘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.

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 (0세, 남) 2026.3.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 발생
- (21세, 여) 2026.1.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 증량 후 복통 발생

□ 영유아·고령자는 예방접종, 청년·중년은 비만 치료제로 인한 위해 사례 많아

연령대별 분석 결과,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‘예방접종’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%~81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특히 영유아(0~7세)는 독감, 폐렴구균 등의 ‘예방접종’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.6%(111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 고령자의 경우에도 전체 위해 사례 중 ‘예방접종’에 인한 위해 사례가 25.6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달리 청년(19~34세)과 중년(35~49세)은 ‘비만 치료제’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.1%(119건), 32.3%(65건)로 가장 많았다.

< 생애주기별 주사제 위해다발유형 >



□ ‘예방접종’은 ‘의료서비스시설’, ‘비만 치료제’는 ‘주택’에서 위해 다발

위해발생 장소로는 ‘의료서비스시설’이 69.5%(797건)로 가장 많았고, ‘주택’이 25.9%(297건), ‘복지 및 노인요양시설’이 0.8%(9건) 등의 순이었다.

주사제 유형별 분석결과, ‘예방접종’ 관련 위해 사례는 ‘의료서비스시설’에서 발생한 경우가 77.7%(244건)인 반면, ‘비만 치료제’는 ‘주택’에서 발생한 경우가 74.3%(156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‘예방접종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‘비만 치료제’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주사제의 보관 방법, 투여 용량과 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.

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▲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, ▲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~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, ▲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·기간을 지킬 것, ▲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.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'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'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위해정보 신고]

- (홈페이지) www.ciss.go.kr에서 '위해정보 신고하기' 클릭
- (핫라인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붙임 1. '주사제 관련 위해정보' 분석

2. 주사제 유형별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배현정 (044-200-44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조상훈 (044-200-4422) |
| |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| 책임자 | 팀 장 | 김소영 (043-880-5421) |
| | | 담당자 | 대 리 | 조해령 (043-880-5425) |

붙임 1 '주사제 관련 위해정보' 분석

1. 위해정보 분석 결과

- 최근 3년간('23. 1.~'26. 4.)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'주사제' 관련 위해정보는 총 1,147건임

<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현황>

(단위: 건)

| 구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(~4월) | 계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건수 | 260 | 238 | 462 | 187 | 1,147 |

- 주사제 유형별 접수 건수는 '예방접종'이 27.3%(314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비만 치료제' 18.3%(210건), '진통제' 7.1%(81건) 등의 순이었음

< 주사제 유형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>

(단위: 건, %)

| 구분 | 건수 | 비율 |
|--------|-------|-------|
| 예방접종 | 314 | 27.3 |
| 비만 치료제 | 210 | 18.3 |
| 진통제 | 81 | 7.1 |
| 마취제 | 48 | 4.2 |
| 항생제 | 40 | 3.5 |
| 기타* | 454 | 39.6 |
| 계 | 1,147 | 100.0 |

* 필러, 영양제, 보톡스, 호르몬제 등

- (생애주기별)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 276건, 고령자 250건, 중년 201건, 장년 196건, 영유아 136건, 청소년 47건, 어린이 32건 등의 순임
- (주요 위해 유형) 청년과 중년은 비만 치료제, 영유아·어린이·청소년·장년·고령자는 예방접종(독감 등)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음

<생애주기별 주사제 위해정보 접수 현황(2023.1.~2026.4.)>

(단위: 건, %)

| 구분 | 연령대별 전체 건수 | 1위 위해 유형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| | 유형 | 건수 | 비율 |
| 영유아(0~7세) | 136 | 예방접종 (독감, 폐렴구균 등) | 111 | 81.6 |
| 어린이(8~12세) | 32 | 예방접종 (독감, 일본 뇌염 등) | 12 | 37.5 |
| 청소년(13~18세) | 47 | 예방접종 (독감 등) | 18 | 38.3 |
| 청년(19~34세) | 276 | 비만 치료제 | 119 | 43.1 |
| 중년(35~49세) | 201 | 비만 치료제 | 65 | 32.3 |
| 장년(50~64세) | 196 | 예방접종 (독감 등) | 49 | 25.0 |
| 고령자(65세 이상) | 250 | 예방접종 (독감 등) | 64 | 25.6 |
| 미상 | 9 | - | - | - |

- (장소별) 위해 발생 장소로는 '의료서비스시설'이 69.5%(797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주택'이 25.9%(297건), '복지 및 노인요양시설'이 0.8%(9건) 등의 순이었음

<주사제 관련 위해발생 장소 현황(2023.1.~2026.4.)>

(단위: 건, %)

| 구분(대분류) | 건수 | 비율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의료서비스시설 | 797 | 69.5 |
| 주택 | 297 | 25.9 |
|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| 9 | 0.8 |
| 교육시설 | 3 | 0.2 |
| 공공시설 | 2 | 0.2 |
| 도로 및 인도 | 2 | 0.2 |
| 숙박 및 음식점 | 1 | 0.1 |
| 기타 | 36 | 3.1 |
| 계 | 1,147 | 100.0 |

○ 주사제 주요 위해 유형별 위해 발생 장소

- (예방접종) 전체 주사제 위해정보 1,147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27.3%(314건)였고, 이 중 '의료서비스시설'에서 발생한 사례가 77.7%(244건)로 대부분이었음
- (비만 치료제) 전체 주사제 위해정보 1,147건 중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는 18.3%(210건)였고, 이 중 '주택'에서 발생한 사례가 74.3%(156건)로 대부분임

<주사제 유형별 위해 발생 장소 현황(2023.1.~2026.4.)>

(단위: 건, %)

| 구분(대분류) | 예방접종 | | 비만 치료제 |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건수 | 비율 | 건수 | 비율 |
| 의료서비스시설 | 244 | 77.7 | 32 | 15.2 |
| 주택 | 57 | 18.2 | 156 | 74.3 |
| 교육시설 | 3 | 1.0 | - | - |
| 공공시설 | 2 | 0.6 | - | - |
|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| 2 | 0.6 | - | - |
| 도로 및 인도 | 1 | 0.3 | - | - |
| 기타 | 5 | 1.6 | 22 | 10.5 |
| 계 | 314 | 100.0 | 210 | 100.0 |

-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복통 등 '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'이 16.7%(192건)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'오한, 발열'이 13.0%(149건), '구토' 8.1%(93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주사제 관련 상위 10개 위해증상 현황(2023.1.~2026.4.)>

(단위: 건, %)

| 구분(소분류) | 건수 |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(복통 등) | 192 | 16.7 |
| 오한, 발열 | 149 | 13.0 |
| 구토 | 93 | 8.1 |
|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(호흡곤란 등) | 93 | 8.1 |
| 두드러기 | 92 | 8.0 |
|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| 84 | 7.3 |
|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 (감각저하, 경련 등) | 82 | 7.1 |
| 어지러움, 이명, 메스꺼움 | 77 | 6.7 |
|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| 70 | 6.1 |
| 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 (가슴 두근거림, 가슴 통증 등) | 56 | 4.9 |

○ 주사제 주요 위해 유형별 위해증상

- (예방접종)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증상은 '오한, 발열'이 36.9%(116건)로 가장 많았음
- (비만 치료제) 비만 치료제로 인한 위해증상은 복통 등 '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'이 59.0%(124건)로 절반 이상이었음

<주사제 유형별 위해증상 현황(2023.1.~2026.4.)>

(단위: 건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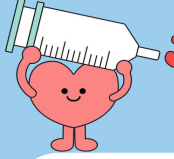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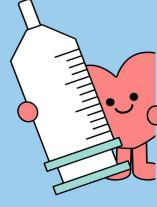
| 구분(소분류) | 예방접종 | | 비만 치료제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| 건수 | 비율 | 건수 | 비율 |
|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(복통 등) | 18 | 5.7 | 124 | 59.0 |
| 오한, 발열 | 116 | 36.9 | 1 | 0.5 |
| 구토 | 10 | 3.2 | 54 | 25.7 |
|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(호흡곤란 등) | 27 | 8.6 | 3 | 1.4 |
| 두드러기 | 30 | 9.6 | - | - |
|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| 27 | 8.6 | 1 | 0.5 |
|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 (감각저하, 경련 등) | 23 | 7.3 | 4 | 1.9 |
| 어지러움, 이명, 메스꺼움 | 13 | 4.1 | 8 | 3.8 |
|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| 10 | 3.2 | - | - |
| 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 (가슴 두근거림, 가슴 통증 등) | 15 | 4.8 | 5 | 2.4 |

2 주요 사례





- (만 0세, 남) 2026.3.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 발생
- (만 21세, 여) 2026.1.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 증량 후 복통 발생
- (만 83세, 여) 2025.11. 독감 예방접종 후 손발 부종과 호흡곤란 발생

붙임 2 주사제 유형별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

주사제 투여 시 소비자 주의사항








예방접종


-  접종 후 바로 귀가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20~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안전해요.
-  접종 후 목욕, 과격한 운동, 음주는 피하세요.
-  통증, 가려움, 붓기가 있다면 찬 물수건을 대고, 출혈이 있다면 문지르지 말고 꾹 눌러주는 것이 좋아요.
-  영유아는 귀가 후에도 보호자가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.

출처: 질병관리청, 대한감염학회


비만 치료제

- 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처방에 따라 투여하고, 특히 임신·수유 중이거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!
- 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준수하세요.
-  비만 치료제는 냉장 보관하시고,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세요!
- 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.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, 의약품안전관리원, 서울대학교병원



한국소비자원
Korea Consumer Agency



공정거래위원회